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수완지구 구간 공사 난항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완공을 앞둔 가운데 따라 2단계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난구간인 7·10공구에 이어 교통밀집지역인 13공구 수완지하차도 구간도 공법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구간 중 7공구(전남대 후문)·10공구(본촌산단)를 제외하고 나머지 8·9·11·12·13·14공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의 공정률은 이날 기준 7%이지만 13공구(농협유통센터사거리)의 수완지하차도(235정거장) 구간은 교통시설과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통 분산을 위해 설치된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전기장비 등이 다수 설치되었고 고층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 현재의 저심도 제작(터널) 방식의 공법으로는 공사가 힘들다고 판단돼 설계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구간은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계 변경과 함께 사업비 등을 다시 책정한 뒤 주



광주서구 풍암동 도시철도 2호선 207정거장 공사현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

“지하 지장물 다수...저심도 제작(터널) 방식으로 공사 힘들어”

설계 변경·사업비 재책정 등 불가피...2030년 완공 차질 우려

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2단계 구간 중 7공구와 10공구는 난구간으로 인해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수완지구 공사 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전체구간은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37km)이며 38개

역사가 설치된다.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된 1단계(6공구)구간은 토목공사 공정률이 90%를 넘어섰으며 2026년 말 완공, 1년 시운 전 뒤 2027년 말 개통이 추진되고 있다.

2단계 구간은 광주역~전남대~일곡~첨단~수완~운남지구~시정 등 총 길이 20km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오권철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좌측)이 26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시도하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일방적 공청회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뉴스

국토부장관-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간 면담 ‘불발’

내달 4일 사조위 공청회 예고에 무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면담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참사 조사결과 보고 공청회 개최 문제로 무산됐다.

26일 국토부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면담이 불발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무안국제공항 1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으나 사조위의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김 장관은 이날 면담을 통해 국토부가 검토하기로 약속한 유가족 협의회 차원의 요구사항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4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이 요구한 ▲사조위 국무총리 소속 기관 및 독립 조사기구 구성 ▲현 사조위원의 직무 정지 ▲피해자 조사·검증 참여 보장 ▲정보공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조위가 다음달 4일 참사와 관련한 사고 조사 공청회 개최를 예고하자 그간 사조위의 조사 역량 부실·독립성 부족 등을 지적해온 유가족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송헌근 기자

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시행

28일부터 적용...화재·사고 대비 피해보상 체계 마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이다. 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이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2기 여순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출범 환영

전남도 “제기된 편향인사 우려 잠재우고 명백한 진상규명 기대”

전라남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새롭게 구성, 명목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업무를 재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새롭게 출범한 2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기존에 제기되었던 편향인사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여순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기 기획단은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연구관을 단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법조계, 유족 대표 등 위촉직 단원 10명과 당연직 단원 5명 총 15명으로 폭넓게 구성돼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단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범정기한인 2027년 4월 4일까지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의 성격, 국가 책임범

위, 희생 규모, 피해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가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완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하게 된다.

김득중 2기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장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광범위한 사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역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기획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단과 함께 직권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의 여순사건 관련 보존자료 조사도 확대해 희생자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민규 기자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난 25일 통일부를 방문해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남교육청, 통일부에 ‘남·북 학생 교류사업’ 제안

미래세대 통일 공감대 확산 목표

전남도교육청은 남북 학생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統一)에서 통일(通一)’ 모델을 마련해 통일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 교류 환경을 조성해 전국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남교육청은 남북 학생 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평화를 품은 책길 10주년 한마당, 2단계 전남·경북 학생 평화수호 프로젝트, 3단계 전국 10만 학생 통일 인재양성 교류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는 2025년 9월 열린 ‘평화를 품은 책길 10주년 한마당’에서 이미 시작됐다. 지난 10년간 평화·통일교육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남북 교류 추진을 선언했다.

2단계는 2026년 7월 추진 예정인 전남·경북 학생 평화수호 프로젝트다. 전남과 경북의 평화·민주 장소 견학과 인문학적 고찰, DMZ 탐방 등을 통해 동·서 간 상호 이해와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3단계는 전국 10만 명의 통일 인재양성을 위해 목포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 개성역, 평양역, 단동으로 이어지는 남북 학생 열차 교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통일·평화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아시아 의(義) 청소년 평화교육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 학생들이 평화를 살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며 미래세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북 학생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